

# 17C 제작 구례 화엄사 '목조 비로자나삼신불 좌상' 국보된다

현존 불교 조각 중 삼신불 유일...높이 3m 법신·보신·화신 석가불 '임란 소실' 화엄사 재건 때 제작...문화재청 "예술·조형적 가치"

현존하는 우리나라 불교 조각 중 삼신불(三身佛)로 구성된 유일한 작품인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사진)이 국보가 된다. 화엄사 대웅전에 봉안된 3구의 좌상은 모두 3m가 넘는 초대형 불상으로, 17세기 불교사상과 미술사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문화재청은 28일 보물 제158호인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을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삼신불은 법신(法身)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 보신(報身) 노사나불(盧舍那佛), 화신(化身) 석가불(釋迦佛)을 말한다. 화엄사상에 근원을 둔 도상으로서, 변상도(變相圖)나 사경(寫經) 등에는

중중 보이지만 조각품으로는 화엄사 사리가 유일하다.

이들 불상은 1635년(인조 13년) 당시 유명한 조각승인 정현과 응원, 인군을 비롯해 이들의 제자들이 제작했다.

최근 발견된 삼신불의 복장유물 등 관련 기록에는 임란 때 소실된 화엄사를 재건(1630~1636)하면서 대웅전에 봉안하기 위해 삼신불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불상 제작 시기를 비롯해 과정, 후원자, 참여자들의 다양한 실체가 담겨 있다.

발원문에 따르면 전국 승려집단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팔도도총섭을 역임한 벽암 각성(1575~1660)의 주관 아래 선조의 여덟 번째 아들 의창군



국보로 지정 예고된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문화재청 제공>

이광(1589~1645) 부부와 선조의 사위 동양위 신익성(1588~1644) 부부 등이 시주자로 참여했다. 또한 다수 왕실 인물 외에도 승려 580여명을 포함

해 총 1320명이 시주한 것으로 돼 있다. 삼신불좌상은 화려한 연꽃 대좌(臺座) 부처의 앉은 자리)와 팔각형 목조대좌에 다리를 곧 결가부좌

자세로 앉아 있다. 큰 규모와 단순하면서도 굵은 선 처리는 중후하면서도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당시 가장 유명했던 조각승 집단인 청현파와 응원·인군파가 참여한 만큼 각 유파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근엄한 표정의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상은 청현파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부드러운 얼굴에 작은 눈과 두툼한 눈두덩이가 두드러진 노사나불상은 응원과 인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17세기 제작된 목조불상 중 가장 큰 대좌 조각으로 유일하게 삼신불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불교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다"며 "예술·조형적 수준도 조선 후기 불상 가운데 단연 돋보이므로 국보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에 지정 예고한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30일간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견수 및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휠...휠...휠... 28일 광주시 서구 학생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제66회 호남예술제 창작무용 경연에서 송윤아(광주예고 2)양이 화려한 춤사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은 송양의 춤동작을 담아낸 30여장의 사진을 다중노출 편집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 학생독립운동 주역 광주여고보 4인의 이야기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소녀회-국난의 시대...' 영상 공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항일여성독립운동가 4인의 이야기를 담은 '소녀회-국난의 시대, 여성으로 태어나 독립을 외치다'라는 영상을 제작했다.

28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따르면 이번 영상은 학생독립운동의 주역이지만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제작됐으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탑재했다.

영상은 항일단체 소녀회를 결성했던 광주여고보 동창생 박옥련·박현숙·장경례·장매성 선생의 일화를 다루고 있다. 학생독립운동 당시 투쟁 상황, 재

판 과정 등을 생생한 사진자료와 함께 소개했다.

박옥련·박현숙·장경례·장매성 선생은 공적을 인정 받아 독립유공자로 추서됐다. 국가보훈처가 선정하는 5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각급 학교에 국가보훈처 지정 이달의 독립운동가 포스터와 학습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조미경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장은 "1929년 11월 학생독립운동이 아쉽게 끝나지만 확산하는 과정에 여성들은 누구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학교 현장에서도 영상자료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 광주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지역 초 3~중 2 50여명 구성...내달 1일 창단식

광주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상무지구 5·18자유공원 내 5·18자유관에서 창단식을 개최한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광주 지역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5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광주중앙초에서 수업을 하며, 연말 창단 연주회도 개최한다. 클래식뿐 아니라 '님을 위한 행진곡', 가곡, 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선보일 계획이다.

채영선 단장을 비롯해 예술감독 임복희, 바이올

린 최희정, 비올라 양신애, 더블베이스 류수경 등 최고의 실력을 갖춘 강사진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

창단식은 광주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주최하고, 광주시교육청·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사)전남문화예술협회가 후원한다.

박영자 광주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 대표이사는 "음악을 통해 치유와 화합, 더 나아가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 경쟁력 갖춘 미래 인재 육성에 힘을 예정이다"며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

## 광주·전남 창업기업 내실 성장 돕는다

### 'BI보육역량강화 지원 사업' 동강대 8년 연속 선정

동강대학교가 8년 연속 'BI보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광주·전남지역 창업 기업들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됐다.

동강대 창업보육(BI)센터는 최근 중소기업벤처부와 (사)한국창업보육협회가 발표한 '2021년 BI보육역량강화 지원 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됐다.

지난 2014년 첫 시행된 'BI보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집중 관리한다.

사업 첫 해부터 8년 연속 프로그램을 수행중인 동강대는 대상을 확대해 올해는 광주대, 남부대, 동신대, 호남대 등 4개 대학의 BI센터 입주기업의 지원근으로 활약한다.

앞서 동강대는 지난해 11월 이들 4개 대학과 공동 주관으로 BI센터 입주기업 네트워크 데이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박경우 센터장은 "보육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의 내실과 위기관리 능력을 키워 창업 성공률을 더욱 높여겠다"며 "올해는 다른 대학들의 주관기관으로 힘을 합쳐 한층 업그레이드 된 '창업 액셀러레이터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불안한 금융상품  
안전성없는 주식투자**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1억 투자시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1억투자시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